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648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음력 2월 11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57.8% vs 이정현 25.0%

〈민주당〉 〈국민의힘〉

●광주매일신문 등 5개社 3차 여론조사

권향엽, 4개 지역·全연령대서 모두 오차범위 밖 선두

비례대표 정당지지도 조국혁신당 39.8% 돌풍 재확인

제22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57.8%의 지지를 얻어 25.0%를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 이정현 전 국회의원을 2배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매일신문이 광남일보·남도일보·전남매일·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대상 제22대 총선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향엽 예비후보는 57.8%, 이정현 예비후보는 25.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진보당 유현주 예비후보(전 전남도의원)가 4.3%, 기타 후보 5.3%, 잘 모름 4.2%, 지지 후보 없다 3.3% 순이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순천(해룡면, 59.3%)과 광양(61.2%), 곡성(48.2%), 구례(45.7%) 등 4개 지역 모두 이정현 예비후보(순천 25.0%, 광양 21.3%, 곡성 38.2%, 구례 32.3%)를 제치고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향인 곡성에서도 권 예비후보에 10%p 격차로 뒤졌다.

권 예비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이 예비후보에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지지율로 앞섰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 권향엽 59.7%·이정현 24.0% ▲30대 권향엽 47.4%·이정현 38.7% ▲40대 권향엽 56.6%·이정현 16.9% ▲50대 권향엽 62.9%·이정현 23.3% ▲60대 권향엽 57.9%·이정현 26.3% ▲70세 이상 권향엽 59.0%·이정현 24.5% 등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의 경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39.8%로 오차범위 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31.2%, 국민의미래 10.3%, 개혁신당 3.9%, 새로운미래 2.8%, 녹색정의당 1.8%, 잘 모름 3.8%, 없다 3.5%, 기타 정당 2.9%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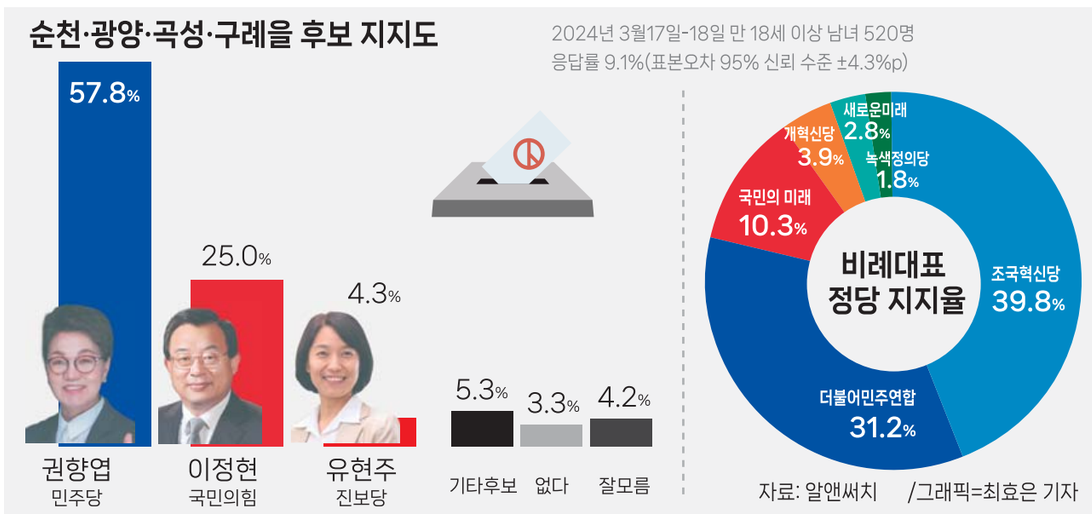
연령대별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50대에서 53.8%로 가장 높았고, 40대 47.2%, 60대 41.9%, 30대 37.5%, 70세 이상 25.6%, 18세 이상-20대 24.0% 순으로 조사됐다. 40-60대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별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순천(45.7%), 광양(40.7%), 구례(44.5%)에서 모두 40%을 웃돌았고 이정현 후보의 고향인 곡성(더불어민주연합 34.4%, 국민의미래 15.3%)에서는 20.0%에 머물렀다.

반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5.5%, 조국혁신당 19.8%, 국민의힘 11.5%, 새로운미래 2.8%, 개혁신당 1.8%, 녹색정의당 1.6%, 지지 정당 없음 4.0%, 기타 정당 1.6%, 잘 모름 1.4% 순이다.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진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중도' 32.8%, '보수' 13.1% 등으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20.4%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오월 영령 앞으로…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출범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5월 단체, 각 기관·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월영령 참배를 위해 추모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월 왜곡·폄훼' 규탄…지역·세대 연대

제44주년 5·18행사위 출범…'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주제

63개 기관·단체 참여…공법3단체 또 불참 의미 퇴색 우려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19일 출범했다.

행사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박미경 행사위 상임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중의례, 인사말, 출범선언문 낭독, 5·18민주묘지 합동 헌화·분향, 44주년 전야행사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위는 지난 30여년간 5·18 기념행사를 주관해 온 민간 조직으로 올해는 63개 기관·시민 단체와 함께 광주시·광주시교육청·주민자치연합회 등이 새롭게 참여했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며 기조 및 방향은 ▲미완된 5·18 진상 규명 과제 완수 시민 공감대 확보 ▲과거·현재·미래 세대 소통 '오월정신 전승 토대' 마련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행사 구현 등이다.

박미경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오월의 이야기'를 함께 해결하는 기념행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강기정 시장은 "여전히 5·18을 폄훼하는 망언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44주년에 맞춰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만들어 미완의 남은 숙제를 풀어갈 방향과 방법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주성학 기자

민주 광주 후보들 "황상무 파면하라"

총선 D-21

"5·18 왜곡·언론 협박 법·원칙 따라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광주지역 공천장을 받은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전진숙·박균택·민형배 예비후보는 19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협박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을 자행한 황상무 수석은 슬그머니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경질하지 않고 사태를 묵과하려는 대통령실의 행태 역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故오흥근씨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황 수석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황 수석의 망언·망동에 대통령실도 동조한다는 반증이다. 아니라면 당장 황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박선강 기자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모집인원 00명
교육기간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12월 종강(연 16회)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곽수종 소장 리엔경제연구소
김계훈 교수 전남대의과대학
문달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재희 원장 민족문화컨텐츠 연구원
오정해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이종선 대표 ㈜이미지디자인컨설팅
이창용 미술사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